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 <http://j catholic.or.kr> | E-mail | catholic114@hanmail.net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입당 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제1독서 | 민수 6,22-27

## 화답 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  
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

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  
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제2독서 | 갈라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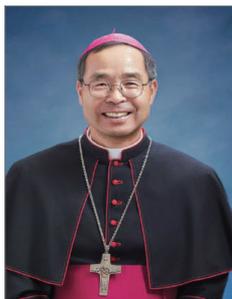
## 복음환호송 | 히브 1,1-2 참조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  
리에게 말씀하셨네.
- ◎ 알렐루야.

## 복 음 | 루카 2,16-21

##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 전주교구장

## “투 아데스토”(Tu adesto)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새해는 아무도 걷지 않은 새하얀 눈밭과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끝날 무렵, 이 눈밭에 어떤 자취가 남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으로 남기고 싶은 자취의 주제를 미리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걷지 않은 새하얀 눈밭을 온갖 오류와 더러움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투 아데스토”(Tu adesto)입니다. 이는 서양에서 옛사람이 긴 여행을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했던 말로써, “당신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긴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렵고도 힘든, 위험한 길을 혼자 걷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 짧은 기도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모든 일이 잘되어 갈 때, 제가 행복을 느낄 때, 큰 성공을 누릴 때 항상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이웃을 만날 때도 항상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워할 때도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외로움을 느끼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제가 유혹이나 시련을 당할 때, 죄를 짓거나 병들고 고통을 당할 때도 항상 저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그 어디서나 당신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간청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분명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고, 많은 표징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밝혀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느님의 이러한 은총에 힘입어 올 한 해 동안 특히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마음을 모읍시다. 하느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사랑을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교회를 이루시고, 기쁨과 평화를 가득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때인 새해를 시작하며, 하느님의 백성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향한 저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우리가 창조주께 받은 존엄을 표현하며, 과학과 기술은 인간 지능의 창조적 잠재력이 빚어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뛰어난 성취 덕분에 인류의 삶을 괴롭히고 커다란 고통을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술-과학의 발전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의 집을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디지털 도구들은 커뮤니케이션, 공공 행정, 교육, 소비, 개인 상호관계,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의 수많은 측면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은 데이터 축적과 구조화와 확인 과정의 혁명은 물론 고된 노동에서의 해방, 더욱 효율적인 제작 공정, 더 편리한 수송과 더욱 준비된 시장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빠른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기본 인권을 보호하며,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제도와 법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변화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공 지능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왜곡 심화로 이어지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동원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기술이 중대한 위협을 생겨나게 하는 분야로 사생활 보호,

데이터 저작권,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오용에 따른 또 다른 부정적 영향에는 차별, 선거 개입, 감시 사회의 증대, 디지털 배척, 점점 사회와 유리되는 개인주의의 팽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분쟁을 부채질하고 평화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유형들 사용에 관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인공 지능의 전 세계적 규모는 그 국내 사용을 규제하는 주권 국가의 책임과 더불어 국제기구가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과 집행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양한 유형의 인공 지능의 발전과 사용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하고자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국제 공동체가 함께 힘써 주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인공 지능이 발전하는 유형의 행보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형제애와 평화에 기여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몇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인류 가족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인공 지능 유형들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의의 사례들을 늘리지 않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류 가족을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티칸에서, 2023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 사제·부제 서품식 2024

전주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아래와 같이 거행됩니다.  
올 해 서품식은 교구 내 모든 신자가 서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교회는 심각한 '성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 위기 시대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각 본당 **초·중·고 복사단 학생들을 특별히 초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전주 실내체육관(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주례 : 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 ▼ 사제 서품자



강석희 세베로(평화동)



최태현 가브리엘(영등동)



오창훈 사도 요한(지곡)



오재교 안토니오(효자동)



유일환 요셉(평화동)



서동욱 비오(신동)



## 부제 서품자 ▶

이상훈 율리아노(신동)



김민석 비오(평화동)